부처가 되려 하지도 말고 못났든 잘났든 그대로 그냥 수순히 걸어가라

☞ A33면에서 계속

나오는 대로 주걱으로 쳤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것이 다 용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살림하면서 별게 다 나오는데, 병고로 인해서 걱정, 가난해서 걱정, 회사에 가서 상사들한테 꾸중을 들어서 걱정, 또 애들이 속을 썩여서 걱정, 또 부부지간에 싸워서 걱정, 돈이 없어서 걱정, 뭐, 걱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죽방울은 죽방울인데 그렇게 다른 죽방울이니 그것들이 다 한 솥에서 나온다 하는 것만 믿고 알아라. 그러면 거기에 다 놓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솥의 죽방울이니 걱정을 하지 말고, 당장 애가 나가서 죽는다 이러더라도 걱정을 안 하고 '거기에서 나온다' 하는 거를 안다면 그 애는 나가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벌써 전체 통신이 되기 때문이죠. 가설이라고 그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내 형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가설이고, 아들이라는 거 마누라라는 거 알지, 어머니라는 거 알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그러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절친하면 절친한 대로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가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한생각을 그렇게 하는 동시에 바로 식구들까지도 다 통화가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벌써 '난 집으로 들어가고 싶구나.' 이러곤 저절로 들어오죠. 자동적이에요, 그거.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람을 다뤄야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애들이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어른이 생각할 때 천부당만부당할지라도 "그래,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해 봐라." 그러고선 아주 좋게 그냥 받아주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만 경험하고 딱 돌아서게끔 마음에다 관해 놓으면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가서 다 해 보고는 "아이, 아버지. 나 그거 고만두겠어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고만두니?" 외려 그러거든. 그러면은 "아, 이만저만해서 그러니까 저 다른 걸로 하겠어요." 한단 말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런 사랑과 자비, 의리, 이심전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관심,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그냥, 나가서 조금만 잘못됐다 하면 그쪽 이유는 듣지도 않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왔어? 공부하라니까! 이 아비는 땀 흘리고 벌어다가 너희들 공부시키는데!" 이럽니다. 누가 아니라나요? 하하하…. "그렇게 공부시키는데 요놈 새끼, 어디 가서 자고 들어와?" 그쪽 사정은 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먼저 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상대방 얘기부터 듣고, 잘못됐으면 "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고 주인공에 맡기는 거, 또 그렇지 않으면 "얘, 그렇게 해서 못 들어왔구나. 그건 참 잘했구나. 네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참 잘했다. 사나이가 그런 의리도 없이 어떻게 살아나가겠느냐." 아, 이렇게 좀 북돋아 주면 나가서 잘못하래도 안 해요.

이것이 부모가 삼분의 일 가르치는 일이고, 삼분의 일은 자기가 자작하며 이끌고 다니는, 바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잡아서 나가는 거, 삼분의 일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렇게 3단계가 한데 합쳐지게 되면요, '이랬어, 저랬어' 도 안 합니다. "아버지." 그러곤 좋아서, 말할 땐 무릎 꿇고 앉아서 정중하게 말하고, 또 재밌게 얘기하고 그럴 때도 이랬어, 저랬어 하고 마구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존경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스무 살, 스물하나, 둘 요 정도가 예전 서른 살하고 맞먹는단 얘기죠. 지금 시대가 그만큼 됐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고도 또 나는 항상 그럽니다. 사소한 일 같더라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자녀들을 못 보고 그냥 나갈 때는 반드시 몇 자 써서 "애, 아무개야!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 놨으니 그걸 데워서 먹어라. 그리고 언제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좀 일찍 들어와서 배고프지 않도록 해라. 너무 피곤하면 안 되지 않니?"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써서 상에 놓아두고 나가면 자식들이 그걸 볼 때 차마 그 자비를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자기 부모를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이건. 그게 뭐 어렵습니까? 오늘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지금 외국이나 한국이나 너무들 삭막하게 사는 것 같아서입니다. 외국 가면 자녀들이 그냥 그 마약 중독 뭐, 이런 것이 돼 가지고요, 부모네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지금.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자3(여) 20년 전에 간호원으로 서독에 가서 10년 정도 간호원 하면서 살아서 여러분처럼 기회가 없어요. 여기 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떠나기 전에 스님께 여쭙고 싶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공부 해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신데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랍니다. 딸자식 된 도리로서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아마도 미운 정이 너무나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20살 되기까지의 그 수많은 괴로움, 피눈물 나는 고생, 남들처럼 제대로 과정을 밟지 못한 처지에 대한 한과 미움이 있어서 엄마를 사랑하기 이전에 서독에 갔다는 그 자체가 꽤나 슬펐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서 서독에 갔어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 '한국에 있었으면 시집도 갔을 텐데 서독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었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어머니를 마주치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남들은 괴로우면 울고 기쁘면 웃고 그러는데 저는 무감각한 상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저쪽에서 한국 사람은 저 혼자밖에 일을 안 해요. 그래서 20년간 한국 사람을 상대 안 하니까 대화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저의 마음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혼자 속으로 '이건 너무나 잔인한 내 마음병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음병을 좀 고칠 수 있을지 스님한테 좋은….

큰스님 말씀을 들을까 이거죠?

질문자3(여) 예, 예.

큰스님 예, 좋아요. 그렇다면 댁이 아무리 고생을 하다 못해 천하없어도 나만은 못했을 거야. 그러나 난 부모에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지금 미워하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또 이뻐하는 마음도 없다는데 댁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뭐가 있었어? 미움도 고움도 없었지? 그리고 서독에도 갈 수가 없었을 거야. 당신이 그래도 어머니를 빌려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었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생 공부를 배웠지, 고생을 안 했더라면 인생 공부를 못 배워. 남이 쓰린지 고운지 또는 아픈지, 그거를 느끼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거를 느끼게 됐거든. 곱게 자란 사람보다 더한층 공부를 더 시켰으니 사자가 사자 새끼를 저 내리막에다가 내팽개친 거와 다름없잖아?

그러니 고맙게 생각하고 어머니날 꽃을 사서 드리면서 무조건, 밉고 이쁘고 떠나서 무조건 부모야, 부모란 말이야. 어머니가 살을 주고, 아버지는 안 계신다 해도 뼈를 줬어. 당신의 영혼은 거기에 부합이 돼서 삼합이 합쳐서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래도 감사히 생각하고 이제는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해야지. 무조건 잘못한 거 잘한 거를 떠나, 이제! 모든 거를 맡겨 놔. 모든 거를 그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재산이 돼서 이 세상에 밝게 빛이 날 거야. 그 얼굴도 이제는 환하게 필 거고 그럴 테니까.

"어머니! 이 꽃을 받으세요. 이 꽃이 내 마음의 꽃입니다. 어머니 꼭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딸 노릇을 꼭 할 겁니다." 그래야지, 밉도 곱도 않다는 게 어딨어? 그러지 말어.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더라도 그때 당시는 아마 자식이 아팠던 것보다 몇십 곱절 아팠을 거야. 그거를 알아야지! 부모는 자식을 배신하는 법도 없고 또 죽이는 법도 없어.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그 환경을 누가 가져왔어?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 닥쳐온 거야. 바로 과거에 자기 산 대로 닥쳐온 거지 누구의 탓도 없어. 알았어?

질문자3(여)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질문자4(여) 저도 사실 마음 밝히는 공부를 참 하고 싶은데 스님처럼 꼭 출가수행을 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음, 그거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 그건 자유로 하는 건데, 하하하…. 내가 느낀 거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머리 깎고 입산을 한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저이는 스님이야,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지만, 출가하지 않고 공부하는 이는 그냥 스님하고 똑같이 다 실천할 수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넓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깎는 거지,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야. 안 보이는 데서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자유야. 스님이 되고 안 되는 건 자유고, 공부하는 거는 스님이 됐든 안 됐든 똑같아.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니, 그 도리도 모르고 스님이 된다면 스님은 돼서 뭘 해? 껍데기 스님이 돼야 소용없어, 아무리 천만 명이 된대도. 그러니까 결심하고 스님이 되는 거, 이거 보통 사람들 아니야. 허허허…. 보통 사람들이라면 우리 이렇게 스님 안 돼. 스님 되는 것도 보통이 아니야.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속단해 버리고 이 무명초, 천차만별로 어지러운 모든 걸 깎아 버리고, '나는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도리를 알겠다!' 하고 다짐하고 들어오는 거, 이거 보통 아니야.

그런데 공부를 한다니까 말인데, 어떤 분야든지, 만약에 의학을 해서 아픈 사람을 건진다 하더라도 이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물질 또는 학술로 배워도 마음으로 50%의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걸 체험해서 터득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그걸 커버하고 나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의당히 이거는 배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질문자4(여) 더 솔직하게 스님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시집을 안 가고 그냥 스님이 되어서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은 끝까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 보는 중이거든요.

큰스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중이라면 진짜 생각을 해서 단호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나는 시간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시집을 간다, 장가를 든다고 하는데 그런 일에 정신을 빼앗기는 사람이라면 공부도 못할 거 괜히 스님이 돼서 뭘 하느냐. 가정이라도 잘 지켜야지. 이 공부는 모든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앉아서도 이 세상을 다 주름잡을 수 있는 거야. 승려가 안 돼도 말이지.

그러나 이 스님네들은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마음이 돼 줘. 한마음이 돼 준단 말이야. 단호히 결정을 내렸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전체를 그냥 다 끌어들여서 한마음이 돼. 한 기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되려면 스님이 돼서 이 세계를 누비면서 이 마음 법을 전파해도 좋지. 우리 생명의 근본과, 말하고 체험하고 이러는 게 불교니까. 그러니까 풀 한 포기라도 제도하려면 스님이 되고. 그런데 살림하는 사람들은 풀 한 포기까진 생각을 안 해. 또 죽은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 살기 바쁘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야.

※위 법문은 1991년 5월 5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무조건 잘못한 거 잘한 거를 떠나, 이제.
> 모든 거를 맡겨 놔!
> 모든 거를 그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 그러면 재산이 돼서 이 세상에 밝게 빛이 날 거야.

부처님 오신날
- 2019년 -

(사) 法불교조계종

종 정 철허 만원(봉은정사)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원로원장 성인(대덕사)
종회의장 혜승(선운사)
규정원장 혜윤(금강사)
교육원장 보현(보광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문화원장 일락(중산정사)
(사)법불교조계종종정사서실장
사무총장 본산 대성사 주지 성관


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TEL 02-762-2459 FAX 02-742-2344